

제7회 한용교포장인상

'96년 10월 한용교 (사)한국포장협회 명예회장 (현 (주)원지산업 대표이사)이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용교포장인상 제7회 시상식이 지난 달 25일 '포장인의 날'에 있었다.

전년도 포장업계 각 분야별로 우수한 실적을 보인 포장인을 대상으로 시상되는 한용교 포장인상은 올해부터 일반부문 2백만원, 장학생부문 1백50만원으로 상금을 인상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편 이번 제7회 시상식에서는 5개분야 7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는데 영업부문에는 해당자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본 지에서는 제7회 한용교포장인상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활동상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제7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연구개발부문	김형건	(주)아이피씨 기술연구소장
생산품질관리부문	전규배	(주)선양 품질관리팀 대리
수출진흥부문	김현학	(주)남경 사업본부 본부장
경영부문	신영수	위더스케미칼(주) 대표이사
장학생부문	이병렬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년
장학생부문	문은정	신성대학 포장시스템과 1년
장학생부문	최수정	용인송담대학 제지패키징시스템과 1년



유해성 덜한 논 톨루엔형 잉크 개발

친환경적인 생산제품 개발 매진할 터

김형건 / (주)아이피씨 기술연구소장

이번 제7회 한용교 포장인상 연구개발부문에서 (주)아이피씨 김형건 기술연구소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협력업체인 울촌의 개발 유도로 인해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런 고객의 리드가 없었다면 어려운 상황에 당면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포장잉크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건 소장은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협력업체인 고객이 받을 상이라며 겸손한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학 졸업 후 김 소장은 86년 대한잉크화학 입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화학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는 지난 96년 (주)아이피씨에 입사, 그라비아 잉크분야에서 지금까지 한우물을 파며

연구개발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김 소장은 이번 논 톨루엔형 우레탄 범용잉크의 개발로 작업 환경 개선 및 잔류용제 극소화로 포장재 위생성 향상을 효과를 높였고 전용잉크를 사용 할때 보다 잉크 제고 부담을 1/3을 줄여 재고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작업시간 50% 이상 단축으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B급 잉크 및 페잉크 양을 줄여 페잉크 처리비용 및 자원 낭비를 줄였다.

“사장님의 신규사업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미래를 앞서가는 안목이 없었다면 연구원들의 신제품 개발도 이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아이피씨는 1982년 그라비아 잉크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골판지박스, Carton Pack, Film 등에 사용되는 Flexo 잉크, 자외선에 의한 잉크도막

“세계시장에 눈을 돌려 선진화된 기술 수용해야”

이 경화되는 UV 잉크 등 모든 분야의 잉크와 수지, 접착제를 제조 판매하는 인쇄관련 종합 화학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주)아이피씨는 1996년 10월 동종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체 순수 기술력을 보유하는 등 포장 관련 잉크분야에서 탄탄한 기업으로 이미지를 다져가고 있다.

김형건 소장은 회사의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이뤄낸 논 툴루엔형 우레탄 범용 잉크 개발이 일본 기술에 종속관계였던 국내 잉크 기술 분야에서 우레탄 잉크만큼은 일본보다 앞서게 된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장님과 관련업체들의 과감한 투자와 결정을 통한 잉크개발이 우레탄 잉크분야에서만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정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김 소장은 벅찬 가슴을 내비쳤다.

앞으로 (주)아이피씨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을 수출하여 합작회사를 계획하는 등 보다 넓은 곳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연구 개발을 하는 동안 잉크업체 규모가 워낙 영세하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및 기술전개를 리드 할 수 없었던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럴때일수록 김 소장은 고객들과의 충분한

의견 및 정보교환, 기술진들과의 토론과 협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김 소장은 친환경적인 생산 제품 개발을 위해 잉크관련 전 업체들과의 화합·단합을 리드하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에 눈을 돌려 선진화된 기술을 수용하여 잉크 분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히는 김 소장은 “외국의 경우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토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제 및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포장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파악을 통해 규제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김 소장은 “포장인들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업계간의 단합과 단결을 통해 기술 선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포장 잉크분야는 식품포장 위생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난이도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하는 김 소장.

회사의 미래를 향한 투자가 없다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를 보면서 포장 관련 잉크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낀다. ☐

이한얼 기자



지속적 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고객 만족

PS필름 국산화 수입대체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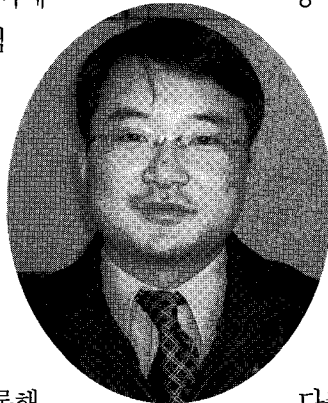
전규배 / (주)선양 품질관리팀 대리

제 7회 한용교 포장인상 시상식에
서는 (주)선양 품질관리
팀의 전규배 대리가 생산품질관리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
았다.

전규배 대리는 “포장업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10여년이 지
난 현재, 포장업계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윤영욱 사장님을 비롯해
포장업계에 오랜시간 종사하고 있는 여러 선
배님들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전규배 대리는 지난
1994년 당시 크라운제과 포장팀에 근무하던
현 신성대학 박근실 교수의 소개로 포장과 인
연을 맺게 된다.

“포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상품을 보존하는
1회적인 용도로 판단했었습니다. 이후, 제품의
보존성뿐만 아닌 기능성을 요구하는 포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필름 재질의 특



성에 대해 알아가면서 포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흥미를 가지게 됐습
니다.”

올해로 입사 10년을 맞게
됐다는 전규배 대리는 (주)선
양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품질 업무를 통해 고객만
족을 실현하고 있다.

전 대리는 지난 96년 도입된
다층블로우필름 성형기를 이용한 끊
임없는 신소재 개발 결과, 그동안 전량 수
입에 의존해왔던 사탕싸개지(방습셀로판)를
PS(폴리스틸렌)필름으로 국산화하는 등 수입
대체에 성공, (주)크라운제과 및 동종업계 제
품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균제가 첨가된 식품포장용 폴리스틸
렌 필름의 제조방법”으로 지난 해 1월 특허청
으로부터 발명특허를 취득했으며, 친환경소재
를 식품포장에 응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
두게 된다.

식품포장에 있어서는 유통뿐 아닌 보존, 기

필름 차별성 높여 생산성 향상 주력

능상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전규배 대리.

그는 현재 기능성 필름인 저온열융합성 및 다층 PS, Easy-Peel 필름 등을 개발해 각종 포장재에 적용하고 있으며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의 신기술, 신소재를 도입, 적용하는 등 기술개발을 비롯한 품질관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규배 대리가 개발한 필름 가운데 다층 Surlyn Film은 스넵포장지의 공정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질소충진 후 Leaking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컵라면 용기, 일회용 접시 등 트레이 용기에 적용 되는 다층 PS는 국내 PS 필름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기술 및 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데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

전규배 대리는 다층 PS 사탕싸개지를 개발할 당시, 인장강도 등 물성의 특성에 따르는 가공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것을 포함해 후가공에서의 오류를 극복하는 일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재의 국산화가 어려워 기능성 수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제품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국내 포장업계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자부심과 축적된 개발 노하우로 연구에 박차를 가한 결과, 필름의 차별성을 높이고, 원가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품질경영시스템의 확보가 여느 산업체에나 중시되고 있는 현재, (주)선양은 지난 해 12월 ISO 9001:2000/HACCP 통합경영인증서를 획득했으며, 그 인증과정에서도 전 대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받았다.

포장관련 협회나 유관단체에서 포장 전시회 뿐만 아니라 포장과 관련된 해외 전시회의 참관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전규배 대리는 앞으로도 고부가가치와 고기능성에 역점을 두고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인다역의 몫을 해내며 회사와 업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규배 대리는 포장업계의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초혜 기자



최고의 제품 생산, 신시장 개척 주력

철저한 사후 관리 통한 신뢰 우선

김현학 / (주)남경 사업본부장

사 한국포장협회가 매년 포장업계 각 분야별로 우수한 실적을 보인 포장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제7회 한용교포장인상에서 (주)남경의 김현학 사업본부장이 수출진흥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수상이 아닌 (주)남경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김선창 사장님과 전 직원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협력업체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합판, 섬유수출산업 물량이 증가하던 때, 김현학 이사는 한국합판 자카르타 지사에서 2년여간 근무하게 된다.

1981년 현 (주)남경 김선창 사장과의 인연으로 (주)남경에 입사, 포장산업과 인연을 맺게 된 김 이사는 이후 수출 업무를 전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게 됐다.



초창기, 김현학 이사는 합판제조 회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특수잉크, 코팅제, 접착제 등 합판제조용 감테이프 및 생산설비를 수출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시도하게 된다.

그 후 김현학 이사는 홍콩, 중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 그라비어 인쇄기, 접착테이프 제조설비 등을 수출해 수출증대와 외화획득에 기여했다.

지난 80~90년대 해외시장에는 국내 기계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상황. 김현학 이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한국에 대해 홍보하면서 고객들에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통해 해외 시장개척을 해야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어렵게 쌓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후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물꼬의 작용을 했고, 수출품의 다양화를 통해 시장

글로벌 경쟁속에서 팀워크 통한 발전 거듭

을 확대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주)남경은 동남아를 비롯한 중남미, 자메이카, 파키스탄, 미얀마 등지에 수출하는 등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수출하는 등 쾌거를 이루고 있다.

김현학 이사는 “지난 2002년부터는 FLEXO 인쇄를 시작, 식품포장지(감미료 등)를 미국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밝히면서 “생리대용 테이프도 대만, 베트남, 호주, 필리핀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들과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 2002년도 수출실적 \$340만불에서 2003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519만불을 달성하게 됐으며 이는 약 50% 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미국 시장의 수출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며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김 이사만의 노하우가 만들어 낸 '신뢰' 덕분에 보람된 마음으로

(주)남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그는 거듭 한용교포장인상의 수상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WTO체제의 글로벌 경쟁시대속에서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포장업계의 난항이 예상되는 2004년 김현학 이사는 팀워크를 중시하고 고객과의 활성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남경의 발전과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계 발전에 일조하는 김현학 이사는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된 수출 노하우로 (주)남경과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박초혜 기자

**KOPA homepage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www.kopa.or.kr



전직원 협력통해 신제품 개발 주력할 터

고객 만족 꾀하는 기업으로 성장

신영수/ 워더스케미칼(주) 대표이사

제 17회 한용교포장인상 경영부분에
신영수 워더스케미칼(주) 대
표이사가 선정됐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협회 회장님 및 한국포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평소 동경하던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포장인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포장업계와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신영수 사장은 “더욱 분발하여 아름다운 회사로 성장시키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워더스케미칼(주)은 Shamrok Food, Walt Disney사 등 음료병 PVC 라벨을 수출하며, 신규라벨 Perforation 방식을 개발, 실용신안했을 뿐 아니라 PE 스트레치라벨을 일본 특허에 등록하는 등 국내 포장 업계발전에 중추



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워더스케미칼(주)은 PET 수출 튜브 개발, PET 시트 회사 인수 등 제품 다양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PET 수축필름, OPS 수축필름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등 탄탄한 중소기업으로써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워더스케미칼(주)을 이끌고 있는 신 사장은 인천대학교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경원화성 설립을 시작으로 1천만불 수출의 탑 및 산업포장 수상, 경기도 신지식인 선정되는 등 마침내 2000년 워더스케미칼(주)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출발한 회사가 필름 제조회사였습니다. 입사 후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향후 포장산업이 종이에서 필름으로 점점 고급화 될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많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포장업에 진출하게 되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

습니다” 신 사장은 위더스케미칼(주) 대표이사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을 직원들의 주인의식 결여를 꼽았다.

“제가 취임했을 당시 직원들은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주체의식 상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직원들의 열정과 협력입니다.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맡는다면 기업은 더욱 발전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 사장은 ‘우리 함께’라는 개념을 위더스 전 임직원들에게 심어주는데 앞장서기 시작했다. 부서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경영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직원 모두를 함께 참여시키는 등 주체의식을 심어주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 것이다.

이러한 신 사장의 노력으로 위더스 가족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매진한 결과 지난해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저는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일관되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 영속기업으로 존립, 발전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주주와 근로자가 만족하는 회사가 되어야겠지요”

신 사장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해 연구원들과의 끝없는 대화와 관련 업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새로운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Needs와 개선 상황을 수렴하여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신제품 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장사장은 말했다.

앞으로 위더스케미칼(주)의 주력제품인 PVC, PP, PO Shrink Film, PET Shrink Tube, PET Sheet 등의 필름 부문을 더욱 강화하는 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는 신 사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감한 재투자와 고객 만족을 꾀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전 직원과의 일심동체를 통해 회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신 사장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사장은 “포장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포장학과 신설노력과 정부직제 포장과 전담부서 및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전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회사가 성장하길 바란다는 신영수 사장의 바람처럼 위더스케미칼(주)이 포장관련 필름 분야에서 고객 만족을 꾀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K]

이한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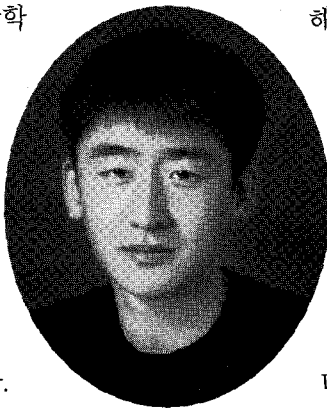


포장산업의 주역이 될터

포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 시급

이 병렬 /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년

제 7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
생 부문으로 선정된 경
북과학대학 포장학과 이병렬
학생은 “한용교포장인상을
받은 영광된 학생으로서 그
이름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 포장이 한 걸음 앞
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학교 은사님을 통해 포장이라
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경북과학대학 시간강사
이셨던 은사님은 때마침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찾아왔던 저에게 포장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죠”

‘포장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더욱 포장학과
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는 그는 직접 학교를 찾
아보는 등 고민 끝에 경북과학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이병렬 학생은 “수업 대부분이 이론만이
아닌 실무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
품과 예를 통한 이해위주의 수업이 저에겐 포장
이라는 분야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
며 학교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걸 좋아

해서 중량물 포장, 특수 포장뿐만 아니
라 식품포장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
다. 제가 학교 졸업 후 어느 쪽을 전
공하던 그 분야에선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포장의 매력은 창조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병렬 학생은 “포장은 새
로운 것의 발견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밑받침 해주는 것”
이라고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병렬 학생은 포장이 제품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부 및 기업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그는 하루빨리 국내 포장 분
야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관련 단체, 업계
의 상호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을 배우는 모든 학우들이 자신의 꿈을 마
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병
렬 학생. 훗날 포장산업의 주역으로 활약할 포
장쟁이들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



포장설계분야에서 포장산업 발전 이끌고 싶어

‘비전’ 있는 포장학 매력 느껴

문은정 / 신성대학 포장시스템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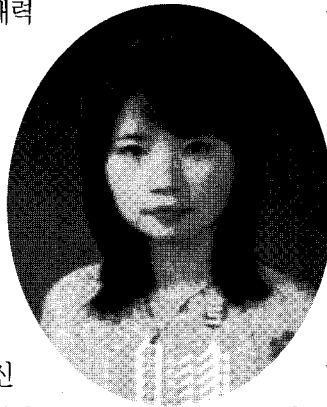
“한 해동안 포장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이수근 교수님을 비롯한 박근실 교수님, 안병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으로 포장학도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선배의 조언으로 신성대학 포장시스템과에 입학하게 됐다는 문은정 학생은 포장은 어느 학문보다 “비전”면에서 앞서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은정 학생은 입학 이후, MT(member ship training), 체육대회, 전시회 등 학과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포장에 대한 흥미를 쌓아가는 동시에 포장학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포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상품의 포장’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포장학을 배우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광범위한 포장의 매력에 심취하게 됐다는 문은정 양.

그는 포장산업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기본인 동시에 중추적인 산업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특히 플라스틱 필름재질과 캔 분야에 관한 수업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플라스틱 필름의 특성과 적용사례에 대해 공부하면서 일상 제품 포장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은정 학생은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포장산업은 필수적인 분야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포장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포장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싶어한다.

국내 많은 대학에 포장관련 학과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문은정 학생은 “포장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포장학과에 대한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 홍보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졸업 후 포장설계분야(CAD)에서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싶다는 문은정 학생은 포장업체가 발전을 할때 국가 경쟁력도 상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꿈을 향한 그의 노력이 포장설계분야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



국내 대학 포장관련 학과 발전 부흥 기대

친환경 포장재 및 선물 포장 매력

최수정 / 용인송담대학 제지패키징시스템 1년

제 7회 한용교 포장인상에서 장학생 부문을 수상한 용인송담 대학 제지패키징시스템과 최수정 학생은 "뜻하지 않게 장학생에 선정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란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졸업 후 다른 사람들이 갖추지 않은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어겠다는 생각 끝에 제지패키징시스템과를 선택한 최수정 학생.

그는 지난 1년간 포장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직접 상품을 포장했던 실험수업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최수정 학생은 "포장을 공부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포장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포장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적재적소에 올바른 포장을 배치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종합학문을 공부하는 포장학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포장업계 꼭 필요한 전문 기술인이 되고자 포장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는 등 포장 분야 진출에 대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포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을 소비자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데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다는 최수정 학생은 국내 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대학내 포장학과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학생은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히면서, 기능성과 홍보성, 미적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선물포장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포장업계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갖춘 젊은 포장학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

박초혜 기자